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작은 방에 쉬브 바바의 그림을 놓아두어라. 자꾸 그곳에 가서 그 앞에 앉아 바바와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루 종일 그 기억 속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오직 합류시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종류의 사랑은 무엇이나?

대답: 모습이 없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다. 몸 없는 바바, 모습 없는 그 분이 물질 세계로 온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들이 그 앞에 앉아 있다. 합류시대에 너희는 신에게서 직접 사랑을 받는다. 너희들은 전체 사이클 동안 육신의 존재들을 사랑해왔다. 이제 몸 없는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런 사랑은 오직 합류시대에만 존재한다.

노래: 누가 이른 아침에 내 가슴의 문 앞에 와 있는가.

옴 산티. 너희 자녀들은 무한한 아버지가 모습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들은 지금 바바에게 와서 이 새로운 유형의 사랑을 갖고 그와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은 새로운 사랑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들은 신에게서 단 한번만 사랑을 받는다. 너희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을 기억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앉아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친다. 저 무체의 바바, 형상이 없는 분이 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우리 영혼들의 아버지이다. 우리는 지금 그를 알게 되고, 그를 알아본다. 이 사랑은 독특하다. 사실 사랑은 평범함 육신의 존재들 사이에 있는 것이지만, 저 분은 몸을 갖지 않는 무체이다. 너희들이 그분 앞에 앉아 있다. 그분이 와서 큰 사랑을 갖고 너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로운 측면이다. 전에는 더 많은 재물이나 왕궁을 받는 것이 너희 소망의 전부였다. 그런 소망들이 이제는 바뀌었다. 온 세상에 대한 너희의 소망이 변했다. 우리들은 지금 바바를 통해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너희들은 지금 그분 앞에 직접 앉아 있다. 너희들은 그분이 쉬바, 모든 영혼의 아버지, 정화자라는 것을 이해한다. 너희들은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그분 앞에 직접 앉아 있다. 너희들은 무한한 아버지에게 무한한 유산을 받겠다는 열의를 가슴속에 품고 있다. 바바는 매우 독특하다! 그는 형상이 없으며, 정말로 대단하다! 다른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오직 너희만이 어떻게 아버지가 와서 너희를 그에게 속하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너희를 가르치는지 안다. 그러니 너희가 아버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야겠느냐? 아버지가 충고한다: 너희들 각자는 집에 쉬브 바바의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쉬브 바바의 그림을 보면 무한한 아버지, 정화자가 순수한 세계를 세우러 왔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5천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서 천국의 자아-주권의 유산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영혼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며 몸을 통해 그들의 왕국을 다스릴 것임을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가 꿈조차 꾸어본 적 없는 일이다. 그 한 분이 지금 왔다. 그러므로 작은 방 하나에 쉬브 바바의 그림을 모셔놓고 이렇게 써라: 바바가 오셨다. 천국을 세우고, 지옥의 거주자들을 천국의 거주자들로 바꾸려고 그가 왔다. 너희들이 쉬브 바바를 보고 또 보면, 그를 기억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넣은 목걸이(로켓)를 목에 걸고 다닌다. 심지어 남편 사진을 넣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 그와 비슷한 것이 준비되었다. 저 너머에서 온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은 독특한 것이다. 남들을 기억하는 일은 모두 멈추고, 아버지를 기억해라.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이 집에 작은 방이나 숭배를 위한 사당을 차려놓듯이, 지식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고 그 안에 오직 쉬브 바바의 그림만 두어라. 사람들은 브라마 쿠마리스의 멀리가 너희를 악덕에서 해방시켰다고 믿는다. 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좋다! 순수해지려면 반드시 악덕을

버려야 한다. 그들은 기분이 언짢아져서 묻는다: 당신들은 왜 신봉을 버리는 것입니까? 앗차, 우리는 신봉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분께 할 뿐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요가를 남들에게서 분리시켜라. 너희들은 마야와 전쟁을 한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마야는 그 연결을 끊으려고 한다. 우리는 쉬브 바바에게서 우리 유산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계속해라. 너희들이 쉬브 바바를 계속 바라본다면 너희의 작은 방이 낙원이 될 것이다. 미라도 역시 신봉을 행했을 때 낙원의 비전을 보았었다. 그녀에게 비전을 준 것은 쉬브 바바였다. 너희들이 쉬브 바바를 통해 세계의 주인들이 된다는 것이 이제 너희 지각에 들어가 있다. 신봉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쉬바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들 자신을 그에게 희생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은 쉬브 바바가 가장 높은 분이며, 지고의 영혼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안다. 틀림없이 신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늘에 계신 신, 아버지라고 불린다. 슈리 크리슈나는 천국에 있다. 그는 아버지라 불릴 수 없다; 그는 아이다. 몸 없는 아버지가 천국을 세우는 한 분이다. 그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모든 이를 “아버지”라 부른다. 사람들은 심지어 간디를 “바푸지”(아버지)라 불렀다. 어쨌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다. 너희들은 모든 이의 바푸지가 쉬브 바바라는 것을 안다. 쉬바는 다다가 아니며, 그는 바바이고, 비물질 세계에 산다. 사람들은 크리슈나를 기억하지만, 그는 낙원의 거주자다. 모든 육신의 존재들, 리쉬와 무니 등도 여기에 있었다. 신은 물질이 아니며; 그는 몸을 갖지 않는다. 편재의 개념 때문에 그 누구의 지각도 제 구실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와서 너희 지각의 자물쇠를 연다. 이것이여기의 새로운 양상이다. 다른 영적 집회에서는 쉬브 바바가 자신들에게 지식을 주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곳에는 육신의 존재들만 앉아 있다. 몸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믿음을 너희는 갖고 있다. 분명히 몸 없는 한 분이 그 자신의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몸 안에 들어왔을 때뿐이다. 아버지는 매 사이클마다 온다. 그가 와서 너희를 세계의 주인들로 만든다. 그렇지만 마야가 여전히 너희를 매우 괴롭히며 장애물을 만든다. 악마들이 지식의 희생의 불 안에 장애를 만든다. 너희들이 육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가 온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들 자신이 몸이 없다고 여겨라. 우리는 바바에게 속한다. 우리를 집에 데려가려고 바바가 왔다. 너희들은 몸을 벗고 집에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 자신에게 말해라. 미묘한 몸이나 육신의 존재를 기억하는 일을 모두 버려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 영혼들은 지고의 지역에서 왔다. 우리는 그곳의 거주자들이다. 황금시대에 우리는 여러 생에 걸쳐 왕국을 다스렸다. 우리는 84생을 태어났고, 이제 드라마가 끝나간다. 우리는 집에 돌아가야 한다. 집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작은 방에 쉬브 바바의 그림을 놓아두어라. 브라민 사제들은 여자들이 쉬바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쉬브 바바는 특별히 어머니들을 위해 왔다. 많은 이가 쉬브 링검 위에 물을 뿌린다. 사제들은 매우 흐뭇해하는데, 왜냐하면 주로 어머니들이 대부분의 돈을 시주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신봉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순진한 어머니들인 반면, 남자들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들은 되풀이해서 떠나버린다. 그들의 지각의 요가는 많이 헤맨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애착을 갖는다. 너희 자녀들은 이것이 슬픔의 나라인 것을 이해한다. 행복의 나라를 창조하는 바바가 지금 왔다. 너희들은 바바를 기억할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한다. 이 두 눈에는 그가 보이지 않는다. “쉬브 바바는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다. 너희들은 쉬브 바바의 그림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요가에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쉬바의 그림을 지니고 계속해서 그를 기억해라. 바바가 얼마나 락쉬미와 나라얀의 그림을 아꼈는지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왜 락쉬미가 그의 발을 마치 하녀처럼 문질러준단 말인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화가에게 말해서 락쉬미를 그 일에서 해방시키게 했다. 그렇지만 그는 주머니에 나라얀의 그림을 간직했다. 하나는 주머니에, 또 하나는 현금 상자 안에 넣었다. 바바는 그 그림을 보고 또 보며 도취되곤 했다. 하지만 남몰래 보아서 남들의 눈에는 띄지 않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말했을 것이다: 저 사람은 대체 뭘 하는 거지? 처음에는 크리슈나를 사랑하더니 그를 떠나 비슈누를 사랑했더군. 열렬한 신봉이

있듯이 너희의 기억도 또한 그렇게 집중적이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 굉장한 성취가 있을 텐데, 그에 반해 저렇게 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한시적으로 약간의 행복을 맛볼 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음 번 생에서 또 다시 노력해야 한다. 신봉도 사업도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벌어야 하고, 그래야만 너희가 쓸 수가 있다. 바바는 너희가 이번 한 생에 많은 노력을 해서, 21생 동안 그 보상을 경험하라고 격려한다. 거기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21생 동안 한결같이 행복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말한다: 매년 숨을 쉴 때마다 기억 속에 머물러라. 구루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말한다: 염주를 돌리며 “라마, 라마”라는 말을 계속해서 암송해라. 그게 전부다! 라마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라마, 라마”라고 되뇌면서, 그들은 도취감에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들이 마치 라마의 나라에 간 듯하다. 바바가 너희에게 말한다: 쉬브 바바를 기억하는 소리 없는 찬미가 있게 할 뿐, 다른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아라. 그러나 마야도 또한 너희를 방해한다: 신봉의 길에서는 마야가 너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야와 너희 신의 자녀들 간의 전쟁이다. 신이 무슨 말을 했으며 마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여주는 연극도 역시 만들어졌다. 지금은 합류시대이다. 불순하고 악덕에 찬 마야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어떤 폭풍은 위력이 대단해서 사람들을 날려서 아주 멀리에 내동댕이친다. 이 폭풍들은 라반인 마야가 일으킨 것이다. 바바는 계속해서 너희 자신들을 폭풍으로부터 구할 방법들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들이 말한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우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버림을 행하도록 당신들을 고취한 분이 누구이며 당신들의 구루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입니다”라고 답해라. 신이 와서 버림을 행하도록 고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부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고취한다.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와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몸을 포함한, 모든 육신의 관계를 버려라. 이 낡은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기억해라. 산야시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낡은 세상이 이제 실제로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각에서 모든 이를 지우고, 너희의 지각을 한 아버지와 연결해라. 너희들은 지금 약속을 했다. 만일 너희가 육신의 존재를 기억하면 너희의 약속이 힘을 잃을 것이다. “나는 아무개다, 또는 내가 이것이고 저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다른 종교들을 버려라. 그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겨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의 84생에 관해 알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큰 행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박수를 쳐야 한다. 너희들은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겨라. 전에는 영혼인 내가 아름다웠고, 그런 다음 내가 84생을 태어났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런 다음 천국의 왕국을 다스리러 돌아올 것이다. 이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것은 아주 쉽다. 너희들의 주머니에 쉬브 바바의 그림을 지니고 다녀라.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라: 바바, 당신이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 다정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바바입니다. 신봉의 길에서 너희가 크리스슈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었다. 금과 은으로 쉬바의 최고급 펜던트 등이 만들어질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금 펜던트를 주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은 펜던트를 줄 것이다. 이 어머니들은 참 다정하다. 마을 사람들은 신봉에 관해 좋은 느낌을 받는다. 바바도 역시 평범한 자녀들을 보니 기쁘다. 크리스슈나는 시골 아이로 알려졌었다. 사실 크리스슈나는 시골 아이가 될 수 없다; 그는 천국의 주인이었다. 그들은 이 사람과 크리스슈나에 관한 것들을 섞어 놓았다. 시골생활을 완전히 경험한 것은 이 사람이다. 그러므로 쉬브 바바나 크리스슈나는 시골 아이일 수 없다. 그렇다, 이 다다가 어렸을 적에는 시골의 개구쟁이였다. 그는 시골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와서 이 평범한 몸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기억에 따라 어떻게 좌우되는지 그 주된 측면에 관해 바바가 설명했다. 너희들은 절대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킵(세속의)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잊는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리는 적이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너희 자녀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끊임없이 기억을 실천함으로써만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승리의 염주의

일부분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와서 늙은이들, 가난한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과 탄압 받은 이들을 높여준 다음, 그들을 모두 그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다. 사실은 그림이 필요 없지만, 마야가 너희를 잊게 만들기에 그림을 간직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쉬브 바바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너희 지각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해방된 삶에 이르는 길을 보아왔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다른 어떤 안내자도 없다. 이것은 또한 인드라프라스트(인드라의 법정)라고 알려져 있다. 만일 불순한 자가 여기에 와서 몰래 앉아 있으면 그는 돌 지각을 갖게 된다. 바바는 모든 비밀을 아는 분이다. 이 바바(브라마)는 외적인 모든 것을 안다. 저 바바(쉬브 바바)는 불순한 자가 몰래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순한 자를 데려오는 사람과, 와서 몰래 앉아 있는 불순한 사람 자신도 벌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불순한 자들을 여기 데려와선 안 된다. 법은 매우 엄격하다. 더럽고 불순한 자들이 여기 앉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너희가 매우 심한 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속이거나 훔치는 일을 행할 수 없다. 죄와 자선의 계좌 양쪽 모두 다람라지에게 있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모든 이를 기억하는 것을 멈춰라. 모든 이에게서 너희 지각의 요가를 떼어내, 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라. 쉬브 바바를 위하여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순수하게 오직 그만을 기억하며 앉아 있어라.
2. 너희 스스로에게 달콤한 얘기를 들려줘라: 전에는 우리가 무척 아름다웠다. 우리는 이제 84생을 마쳤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며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려라.

축복: 한 분을 기억하며 너희의 단계를 한결같고 안정되게 만듦으로써 높은 지위에 대한 권리를 가져라.
너희의 단계를 한결같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 분만 기억하며 안정해 있어라. 한 분 외의 다른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그 경우엔 한결같고 안정된 단계가 아니라, 너희의 단계는 몹게 희석될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다정함). 다른 어떤 다정함이 너희를 유인하고 만일 그 순간 너희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너희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주의를 기울여라. 한 분에 대한 교훈을 한결같이 굳게 해서, 한 분 뿐 아버지, 한번뿐인 합류시대의 때에 대해 확고해져서 변함없고 안정된 단계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가 높은 지위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것이다.

솔로건: 순수한 생각이라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정한 바이슈나브들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